

# 억울한 소방관 없어진다

### 이용호 의원, 구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무수행 중 발생 소송, 국가가 지원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사진)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 통과되어 억울한 소방관에 대한 실효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활동이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과실치사 및 치상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규정하는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없다. 이로 인하여 소방공무원 개인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구)국민안전처는 지난 2015년부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속 공무원으

로 구성된 '법률지원지원단'을 설치했지만 올해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소방청·해양경찰청으로 분리됨에 따라 '법률지원지원단'도 없어졌

다.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는 재난 현장과 구조·구급활동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6급 상당(소방경) 소방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다. 현재 재직 중인 소방변호사는 총 28명이지만 지역별 인원이 다 다르거나 소방변호사가 없는 지역도 있어서 소방변호사의 실효성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 안을 기반으로 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소방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소방청장 등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등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나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소방청장 등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등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호 의원은 "소방관들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소방관들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억울한 소송을 당할 때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지사다."라며, "소방청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신설된 만큼 보다 실효적인 법률지원단 지원이 구성되어 소방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드론 항공촬영 '선유도 일몰'

국립 군산대학교와 새만금개발청, (사)한국드론협회 공동 주최한 '2017 새만금 드론 항공촬영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선유도 일몰'. 이 공모전은 '생동하는 새만금'을 주제로 드론을 활용하여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됐다. 대상에는 영상 'show me the 새만금'이 선정됐다. (사진=군산대 제공)

## 전북형 ICT 발전위해 전문가 총집합

### 이들간 민·관·산·연 전문가 워크숍 열려

### 비전제시 등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 모색

전북도내 ICT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7일~8일 양일간 전북지역 ICT산업 발전을 위한 민, 관, 산, 연 전문가 워크숍을 했다.

이번 워크숍은 중앙부처 4차산업혁명 추진동향과 전북도 및 유관기관들이 추진하는 ICT사업정보 공유, ICT분야 비전 제시 및 방향을 설정, 전북형 ICT융복합사업 발굴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 모색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워크숍은 먼저 박종우 전남대 교수로부터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었으며, 전북도 및 유관기관에서 추진

하는 ICT분야 사업에 대한 공유가 이어졌다.

전북도의 정보화사업추진계획, 지능정보 데이터기반 미래농업 플랫폼 구축, 귀농 귀촌 서비스모델 빅데이터 분석사업에 대한 설명과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김순태 전북대학교 교수로부터 블록체인의 이해와 적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과 신재생 에너지테마파크에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성 기자

## 도, 선진 토지·지적행정 발돋움

### 업무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기관에 남원시·무주군

전북도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토지 및 지적공간정보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 토지·지적업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기관표창을 전수한다.

12월1일부터 10일간 진행된 평가를 통해 개별공시지가업무, 지적측량검사, 지적재조사추진 및 도로명주소 확

성화 추진 등을 대상으로 시·군에서 자체점검 후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4개 시·군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심층 검증한 후 최우수, 우수기관을 결정했다.

이번 평가는 시·군의 업무환경을 고려하였으며 시부의 최우수는 남원시, 우수는 김제시, 군부의 최우수는 무주군, 우수는 완주군으로 선정됐으

/김진성 기자

## 아이낳기 좋은 완주군 조성 박차

### 육아박람회 5000여명 참석 대성황... 엄마들 큰 호응

여성가족부 아이낳기 좋은 세상 사업의 일환으로 완주군에서는 "아이 낳기 좋은 완주"라는 슬로건 아래 완주 육아박람회를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했으며, 5천여명이 참석하면서 대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는 완주군이 주최하고 완주군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했으며, JTV 전주방송과 우석대학교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3일간 치러진 박람회는 40여개의 육아를 위한 부스가 입점했으며, 매일매일 한 차례씩 신착순 200명에게 사은품도 증정하는 등 박람회를 찾는 젊은 엄마들과 예비엄마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개막식은 9일 토요일 11시에 이루어졌다.

개막식에는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해 지역의 육아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 박람회를 더욱 빛나게 했다.

이번 완주 육아 박람회는 타 박

람회와 다르게 상업성을 띄지 않고, 홍보 위주로 진행했으며 특히, 완주군의 협동조합 업체들도 참여해 완주가 살기 좋은 지역임을 입증하고 알리는 데 큰 몫을 차지했다는 자체평가도 있었다.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완주군의 이 모 예비엄마는 "완주군에서 이런 행사가 열려 너무 좋았고, 예비엄마로써 다양한 육아에 대한 많은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어 유익했으며, 이런 행사들이 우리 완주에서 자주 열려 엄마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성일 군수는 "이번 완주 육아 박람회를 통해 완주의 예비엄마들이 육아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또한, 완주에 아이 울음 소리가 많이 들리길 바라고 아이낳기 좋은 세상의 여성가족부 사업 취지에 맞게 앞서가는 으뜸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황현 도의장, 소외계층 위해

###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훈훈'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익산3·사진)은 지난 8일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에게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황 의장은 이날 의정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김광호 회장과 이건용 사무처장, 봉사회 전북지사협의회 강형숙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황현 의장은 "지진과 같은 각종 재난현장과 4대 취약계층 지원 등 적십자사의 구호활동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적십자회비 모금에 도민들이 적극 동참해 소외계층에 큰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12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2018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행사를 진행한다. 모금 목표액은 17억7000만원이다.

/김진성 기자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